

‘진안역사박물관’ 내실 있는 운영 빛났다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결과 3회 연속 인증기관 선정 ‘꽤’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운영하는 진안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2017, 2019년 평가인증에 이어 3회 연속 인증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진안역사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립박물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박물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2022년 평가인증은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2019~2021년까지 기간 동안 박물관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과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범주 18개의 세부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지난해 9월 서면평가와 10~11월 현장평가가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31일 평가인증 결과가 최종 발표됐다.

발표된 2022년 평가인증 결과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 중 139개 공립박물관만 인증기관으



진안역사박물관 전경

로 선정됐으며, 금번 인증기관에 선정된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대상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3회 연속 평가인증제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진안역사박물관은 2006년 개관한 진안군 유일의 종합박물관으로, 진안의 역사문화를 종합적

으로 전시·교육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인증기관 선정은 계기로 지역의 공립박물관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안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고, 군민이 수준 높은 역사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유태만 기자

전주교대, “우간다에 음악교육 나눠요”

김성환·최은아 교수, 전국 초등교사들과 교육 공적 기부 활동 추진

전주교육대학교 김성환 교수(윤리교육과)와 최은아 교수(음악교육과)는 5~18일까지 전국 초등교사들과 함께 교육 공적 기부 활동을 떠난다고 밝혔다.

‘참교육과 아이들의 희망(TEACH)’ 주최하고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은은 우간다 프로젝트팀이 주관해 아프리카에 음악교육 나눔의 손길이 전해질 예정이다.

이들은 5개 초등학교와 쿠미대학교를 방문해 총 300여 명의 학생과 150여 명의 교사 및 예비교사를 만나 지난 2년간 개발한 음악 교과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범수업을 수행한다.

또한, 강강술래, 전래놀이와 같은 방과 후 프로그램 활동과 아카펠라 등 미니 음악회 개최, 현장 교사들과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교육발전 활동에 대한 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책임 준비한 최은아 교수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 가는 만큼 의미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교육 시스템과 콘텐츠를 잘 전하고 오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아트센터에서 펼쳐지는 ‘I hope NAC’ 야외전시는 빛과 예술을 주제로 100개의 조명이 빛나는 ‘빛의 소원나무’를 설치해 오는 1월말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아트센터, ‘빛의 소원나무’ 야간명소 인기

시민문화공간 남원아트센터(구 KBS남원방송국)가 새해맞이 지역예술인과 함께 ‘빛과 예술’로 토끼해에 희망 메시지를 전한다.

남원아트센터에서 펼쳐지는 ‘I hope NAC’ 야외전시는 빛과 예술을 주제로 100개의 조명이 빛나는 ‘빛의 소원나무’를 설치해 오는 1월말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미술협회남원지

부 관계자는 “빛은 어두울수록 더욱 밝게 보이듯이 빛의 소원나무로 전 세계인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고 더 나은 미래로 향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남원아트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전시, 공연, 문화교육 등이 문화예술거점 최근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는 야간명소로도 알려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 미술의 ‘오늘’ 선보인다

문화예술공간 오늘, 내달 8일까지 지역 예술인 작품 전시회 개최



익산지역 예술인들의 감성이 가득한 다양한 작품들이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익산지역 예술인들의 감성이 가득한 다양한 작품들이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시와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대하로 ‘문화예술공간 오늘’에서 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2월 원광대학교 전·현직 교수들과 졸업생, 재학생들의 작품전시

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전시이다. 사)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 소속 작가 20명이 참여해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 등 작가들의 감성이 담긴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통해 익산 미술의 오늘을 선보이고 있다.

개관전 마지막 전시는 다음달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원광대학교 교수들과 청년 예술인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발표회, 체험전시, 아트마켓 등을 추진한다.

한편 북일초등학교 맞은편에 조성된 ‘문화예술공간 오늘’은 지역 예술인들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전시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일요일은 휴관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